

OECD Forum 2012 참석

- 신종원 부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자 : 신종원 부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센터)
- 출장기간 : 2012년 5월 20일(일) ~ 5월 25일(금) (5박 6일)
- 출장지역 : 프랑스 파리
- 출장목적
 - OECD에서 주최하는 2012년 OECD Week 2012 프로그램 중 하나인 OECD Forum 2012 참가
 - Forum Title: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 “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”

○ 세부 출장일정

	주요 일정
5.20(일)	서울 출발 → 파리 도착
5.21(월)	OECD 방문 및 기념포럼 등록
5.22(화)	OECD Forum 2012 1일차 참석
5.23(수)	OECD Forum 2012 2일차 참석
5.24(목)	파리 출발
5.25(금)	서울 도착

2. 출장 내용

OECD Forum 2012 개요

○ OECD Week 2012는 크게 회원국의 주무장관이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(Ministerial Meeting)와 회원국의 정책담당자, 시민사회 단체 및 연구진 등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토의 하는 Forum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

○ OECD Forum 2012는 “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” (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) 이라는 주제로 2012년 5월 22~23일 양일간 개최

- Forum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경제·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, 중산층의 몰락, 금융규제완화의 폐해,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주제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(social trust)회복 및 포용 성장(inclusive growth)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였음

- 또한 OECD의 2012년 세계경제전망(OECD Economy Outlook)과 2011년 처음 작성·발표된 OECD Better Life Index의 보완사항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

- Forum의 세부 프로그램 및 참가자는 OECD Forum 2012의 공식 웹사이트(<http://www.oecd.org/dataoecd/38/49/50536557.pdf>)를 참조

“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” (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)이 2012년 Forum의 주제로 선정된 배경

○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대규모 실업자 양산과 빈곤층 확대를 경험하고 있음

○ 이러한 실업률 증가 및 빈곤층 확대는 불평등도를 심화시켜 경제내 구

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구성원간의 신뢰(trust)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- 지난해 중동의 민주화 시위 및 Occupy Wall Street-London-Davos 등에서 관찰할 수 있듯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및 사회운동은 근본적으로 성장 일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- 즉, 지금까지의 성장정책(Growth Policy)는 사회적 배려(Social Inclusion)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어 왔으며, 그 결과 경제 구성원간의 신뢰를 상실하고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존재
- 이번 Forum의 주제인 “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” (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)은 사회적 배려와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모델의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선정되었음

□ OECD 2012 Economic Outlook

- OECD의 Chief Economist인 Pier Carlo Padoan이 발표한 2012년 세계 경제전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.
- OECD는 세계 경제가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
 - 미국과 일본경제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 - 신흥국(Emerging economies)의 경우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음.
- 그리스, 스페인 등 유로지역에서 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세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.
 - 특히, 유로지역의 경제위기의 상황에 따라 세계경제는 회복세에서 이탈

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○ 2012년 OECD회원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.6%로 예측되어 지난해 2011년 11월 이후 변동이 없지만, 2013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.3%에서 2.2%로 하향조정 되었음.

○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OECD는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

- 교육, 혁신, 경쟁정책 및 녹색성장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
- 유로존의 금융위기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(firewall)의 강화
- 유로존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투자은행(European Investment Bank)의 생산기반(Infrastructure)확충 프로젝트지원

□ Launch of Updated OECD Better Life Index

○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2011년 OECD 50주년 기념포럼에서 약 10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최초로 발표되었음.

- 2011년 5월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이 이용

○ 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주요 경제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GDP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.

- 즉, GDP를 통해 파악할 수 없었던 삶의 질(quality of life)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11가지로 구분하고 지수화 하여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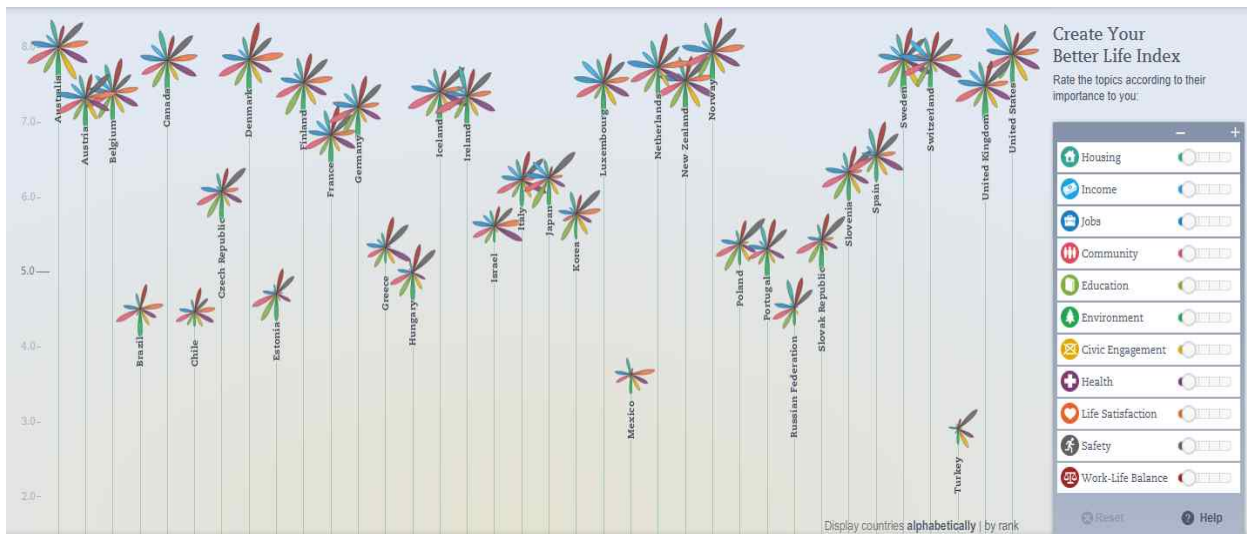
- 11 topics: income and wealth; jobs and earnings; housing; health status; work and life balance; education and skills; social connections; 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; environmental quality; personal security; and subjective well-being

○ 금년 포럼에서 발표된 Better Life Index 2.0에서는 추가적인 항목을 반영 하였으며 지수산정에 포함되는 국가의 범위도 확대하였음.

- sustainability, gender and inequality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, 조사대 상국가에 브라질 및 러시아를 추가

○ OECD는 Better Life Index의 용이한 이용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 축

- <http://www.oecdbetterlifeindex.org/> 참고



□ Talking About A More Inclusive Economy

○ 본 Session에서는 불평등과 그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토의

- 세계 각국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

- 지난 30년간 OECD회원국 국민 중 상위 10%의 평균소득은 하위 10%의 평균소득의 9배로 증가

- 이러한 현상은 선진 G7 국가뿐 아니라 신흥국(emerging economies)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음

- 세금의 재분배기능 약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,
 - 이밖에도 급격한 세계화의 진전 및 빈번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었음.
- 불평등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안정성(stability), 경제성장(growth) 및 노동의 존엄성(dignity of labor)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
- 본 세션의 토론자중 하나인 ITUC (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)의 Sharan Burrow은 불평등의 확대를 “사회적 계약이 파기” (the social contract is broken)로 표현
-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
- 특히,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재정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분배(income distribution)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.
 -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노동정책, 교육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,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었음.
 - 또한 health 및 family care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강화도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.

□ The Squeezed and Emerging Middle Class

- 중산층(middle class)은 서구사회의 안정성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

- 중산층은 한 국가의 주요 소비층을 형성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세원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- 최근 다수의 OECD국가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음.
 - 중산층 감소의 주요 이유로 임금상승의 정체, 높은 세율, 높은 실업률 및 세계화 확대에 의한 노동자간의 국제적인 경쟁 확대 등을 들 수 있음.
- 반면, 신흥개도국의 경우 중산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
 -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중산층의 증가가 재정정책 및 사회 서비스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, 주요 선진국의 중산층 감소와 신흥개도국의 중산층 증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존재
- AFL-CIO(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)의 의장인 Richard Trumka는
 -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무역장벽 제거 노력이 각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며,
 -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중산층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하였음.
 - 본 세션에서는 선진국의 중산층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각 국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,
 - 각국의 구성원이 현재의 세계 실물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

□ How Skill Matter

- 개인의 인적자본(Skill) 현대 경제에 있어 본인 뿐 아니라 세계화된 지식 기반 경제에서도 중요한 자산
 - 인적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없을 경우, 생산수단으로서 노동력은 퇴화하게 되며,
 -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.
 - 특히 경제 및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요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개인의 인적자본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임
- 따라서 경제 및 생산환경 발전에 따른 인적자본에 대한 꾸준한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야 해야 함
- OECD에서는 Skill Strategy라는 타이틀로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
 - OECD Skill Strategy에서는 크게 각국의 상황을 Supplying Skills와 Using Skills로 분류하고 이를 평가
 -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<http://skills.oecd.org/>를 참고